# Ⅲ.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방안

## 중소기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위치

### '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*대비 30% 감축하기로 확정 발표('09.11)

○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을 제정('10.1)하여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* 시행 ('10.4)

* BAU(Business as usual) :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온실가스 전망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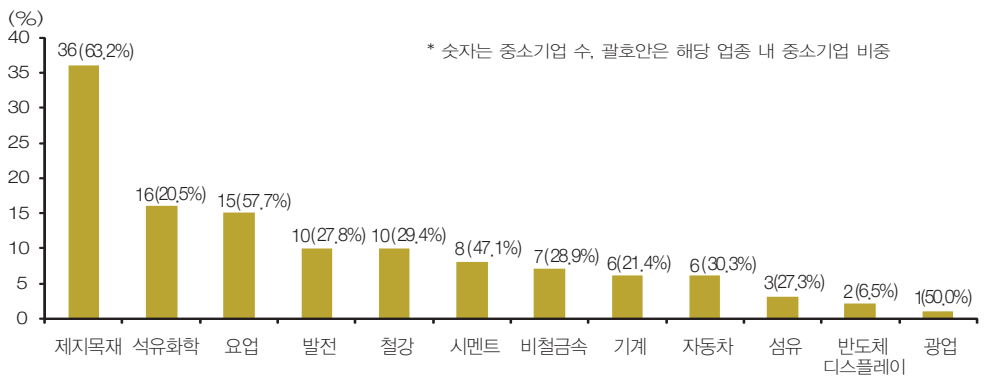
*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: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 업체와 정부가 협의·설정하고 인센티브·페널티 등을 통해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

### 중소기업은 산업·발전분야 관리업체 수의 약 32%,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% 수준으로 국가의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

온실가스 ·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현황 ('10)

| 구 분 (단위) | 관리업체 |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| 개수 | 비율(%) | |
| 대기업 | 254개 | 69.7 | 평균 약 179천t CO2 배출 |
| 중소기업 | 120개 | 32.1 | 평균 약 46천t CO2 배출 |
| 합계 | 374개 | | |

중소기업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종별 현황



## 정부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 정책을 수립

■ 중소기업들은 녹색성장정책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 등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, R&D설비투자 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희망

▌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▌

-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인식 :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큼(51.2%)
  -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우려(40.3%)
- 애로사항 : 시설투자 비용부담(50.4%), 규제강화 우려(20.9%), 관련정보 불충분(14.0%)
- 바람직한 정책방향 : R&D 및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(34.1%)

*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결과 (중소기업 129개사 대상, 조사기간 : '10.1~3월 )

■ 정부는 대 · 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목표관리제 적응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

▌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▌

| | |
|---|---|
| 비전 | · 중소기업 에너지향상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성장 추진 |
| 목표 | · 대 ·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<br>·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 지원 |
| 정책방향 | · 대 · 중소기업 협력 시스템 구축<br>· 목표관리제 적응지원<br>·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 |
| 추진과제 | · 그린크레딧 도입<br>· 목표관리 이행체계 구축<br>· 설비투자 지원강화<br>·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<br>·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<br>·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|

##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세부 지원정책

■ 대–중소기업간「그린크레딧」제도 도입

○ 그린크레딧 제도는 '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 · 중소 상생협력 모델'

○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생성된 크레딧을 목표관리대상인 대기업에 이전

그린크레딧 추진체계




## ■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제공

○ 정부는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'11년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·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

– 인벤토리 구축비용 17백만원씩을 지원(총 30.6억원)하고,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행정컨설팅(1개 업체당 3인, 1개월) 등을 제공

○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하고 '에너지멘토'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하여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할 계획

## ■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

○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 추진

○ ESCO(Energy Service Company : 에너지절약전문기업) 융자자금을 확대,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대기업은 민간 ESCO 펀드로 이원화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

– ESCO 융자자금의 중소기업의 지원비율은 35.5% 수준('05년~'09년 합계)

ESCO 금융지원 제도 운영방안 ('11년)

| 구 분 | 정책자금 | 민간금융 |
|---|---|---|
| 지원방식 |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융자예산 | 정책금융공사 자금(6.5~7%) + 이차보전(-2%) |
| 지원규모 | 4,500억원 | 1,500억원 |
| 지원조건 | 연 2.75% | 연 4.5~5% |
| 대상 | 중소기업 | 중소기업 + 대기업 |

##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제도 효율성 제고

○ 에너지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진단결과에 따라 공정개선 · 시설투자 등을 위해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배정의 우선권 등을 부여

○ 선진 에너지절약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'온라인 에너지진단 시스템'을 개발 · 보급할 계획

##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

○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감축실적 우선구매제도입

– 감축실적 구매제도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(KCERs)을 정부에서 인증하고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('10년 110억원)

○ LED 교체사업* 추진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고,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비율을 40%에서 60%로 확대

*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에 구매비용의 40%(업체별 2,000만원 이내) 보조금 지급 ('10년 10,741백만원 지원)

##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

○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및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현장지원을 위한「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」 권역별 설치

○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(EMS)* 보급 · 확산을 위해, '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개 담당자 교육도 완료할 계획

*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사적 시스템

내용문의 : 녹색성장지원단 서욱 과장 (02-729-6993)